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영향요인과 결과요인 검증

Latent Profil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Consideration of Future Consequence and Validation of Influence Factors and Results Factor

1차원고접수: 2024.07.10. 수정원고접수: 2024.11.27. 최종게재결정: 2024.12.20.

허인화¹ · 조한익²¹경상국립대학교 교육학과, 박사²경상국립대학교 교육학과, 교수Heo, In Hwa¹Cho, Han Ik²^{1,2}Dept. of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하여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을 분류하고 시간 관, 성격5요인 및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은 어떠한지, 잠재집단 유형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는 어떠한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대학생 590명으로 남학생 272명, 여학생 318명이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은 2개의 집단이 도출되었으며 현재결과 관심집단, 미래지향 노력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분류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미래지향시간관, 현재운명시간관, 친화성 및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결과 관심집단과 미래지향 노력 집단별 자기조절능력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 유형에 따라 대학생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결과를 얻기 위한 행동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행동변화에 필요한 개입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주요어 미래결과고려, 시간관, 성격5요인, 자기효능감, 자기조절능력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different latent groups among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ir consideration of future consequences. We used latent profile analysis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included 590 college students (272 males and 318 femal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esearchers could identify two latent groups among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ir consideration of future outcomes. The first group was the present outcome interest group, and the second group was the future-oriented effort group. We also found that future time perspective, present fatalistic time perspective, agreeableness, and self-efficacy influenced the classification of the latent groups. Additionally, the study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regulatory ability between the two groups.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sheds light on college students' different goals and behaviors based on their consideration of future outcomes. The study also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the necessary intervention measures to change behavior.

Keywords consideration of future consequences, time perspective, big five factors, self-efficacy, self-regulation abilit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완성한 결과물로 능력을 평가받는 성취지향적 사회 속에서 경쟁하며 살아간다. 또한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정서적, 경

제적 독립을 하기 위해 학업과 진로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학생들이 직업세계로 원활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미래 준비와 더불어 미래의 불확실성을 인내하며 현재 필요한 행동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자신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미래 결과를 고려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기보다 자신과 타

Corresponding to 조한익 (Cho, Han Ik)

경상국립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Dept. of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E-mail. h1652@gnu.ac.kr

Copyright © 2024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인을 비교하며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근시안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 지연행동 및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이상준, 2020; 주영주, 고경이, 정유진, 2015). 이와 달리 대학생들이 미래의 긍정적인 결과 또는 부정적인 결과를 구체화할수록 현재 행동을 수정하거나 조절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onovan & Williams, 2003). 이처럼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동안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인식하고 조절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미래결과와 현재의 선택 및 행동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의 결과에 대한 인식과 현재 행동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현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때 미래결과를 예측하는 정도와 이러한 미래결과에 영향을 받는 정도를 미래결과고려(consideration of future consequence: CFC)로 정의하면서 미래결과를 고려하는 정도는 대학생들의 태도, 선택, 정보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Strathman, Gleicher, Boninger, & Edwards, 1994). 미래결과를 고려하는 정도가 높은 경우, 당장은 부정적인 결과라도 미래에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기화된다. 또한 미래결과고려 정도가 위험행동, 충동적인 결정을 완충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학업, 생활관련 습관 및 저축, 친환경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현재 결과를 고려하는 정도가 높은 경우, 미래에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더라도 현재 결과가 긍정적인 상황에서 동기화되며 위험행동, 충동적인 결정에 취약하여 지연행동, 건강관련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rnocky, Milfont, & Nicol, 2014; Joireman & King, 2016; Murphy, Cadogan, & Dockray, 2020; Rappange, Brouwer, & Van Exel, 2009). 이처럼 현재결과와 미래결과를 고려하는 정도는 시간적 딜레마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의사결정과 행동 간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으며 대학생들이 현재 자신의 행동을 예측하고 미래의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 인식하도록 이끈

다(Arnocky et al., 2014; Joireman, Shaffer, Balliet, & Strathman, 2012; McKay, Cole, & Percy, 2017).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학업 및 직업세계 진입에 필요한 선택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 대학생들의 현재결과와 미래결과를 고려하는 정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래결과고려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현재와 미래의 시간관점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영역별 미래결과고려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McKay, Perry, & Cole, 2018; Murphy et al., 2020). 또한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다를 때 미래결과고려는 4요인 구조가 타당하며 보상크기의 조절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Zhang, Kong, Zhang, & Li, 2015). 이러한 연구들은 미래결과고려의 평균적인 수준을 바탕으로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영역 특이성, 시간지향성, 보상정도 및 개인의 기대와 목표에 따라 미래결과고려의 개인차를 파악하는 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미래결과고려 척도의 요인구조에 따라 관련 변인과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으며 대학생들이 결과를 고려하는 정도에 따라 현재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 정서, 동기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살펴볼지 못하였다(조한익, 허인화, 2024; Joireman, Balliet, Sprott, Spangenberg, & Schultz, 2008). 또한 변인중심 접근방법을 활용함으로써 대학생들이 미래결과고려와 현재결과고려를 구분하여 인식하는지, 현재결과와 미래결과를 고려하는 정도가 비슷한 수준에서 낮게 혹은 높게 인식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 유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미래결과고려는 다차원적 속성을 갖는 심리적 구인이며 미래결과고려와 현재결과고려는 양극단의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 즉 미래결과고려 정도가 높다는 것이 현재결과고려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맞는 개입방안이 제공될 때 인식의 개선과 행동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Joireman & King, 2016).

대학생들은 현재결과에만 관심을 두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미래의 좋은 결과를 위해 현재 행동

을 조절하고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따라서 미래결과를 고려하는 정도와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 정도에 따라 대학생들의 현재 행동을 예측하고 개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현재와 미래시점 간의 상호관련성과 더불어 인지, 정서, 행동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조한익, 허인화, 2024; Dassen, Houben, & Jansen, 2015; Joireman et al., 2008; McKay et al., 2018). 하지만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 유형을 살펴본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면담에서 청소년들은 미래결과를 고려하지만 무시하는 유형, 교사나 부모가 상기시켜줄 때만 미래결과를 고려하는 유형, 미래결과와 현재결과를 구분하지 않고 고려하는 유형, 미래결과와 현재결과를 모두 고려하는 유형으로 구분되었다(Mckay, Ballantyne, Goudie, & Sumnall, 2012). 이러한 유형들에서 청소년들은 미래결과를 고려하기는 하지만 또래의 영향, 현재를 즐기고 싶은 욕구 때문에 미래의 부정적인 결과를 적극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래결과고려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시간초점 군집분석에서 시간초점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 초점을 맞춘 집단 외에도 초점없음집단과 다중초점집단이 도출된다고 보고하였다(Mckay et al., 2017). 또한 시간초점 잠재프로파일 연구에서는 시간초점 정도에 따라 고수준, 저수준 집단 외에도 균형초점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개입방안을 제안하였다(Shipp, Gabriel, & Lambert, 20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인 간 특성에서 공존하는 양상이 나타날 때 활용될 수 있는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으로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 요인별 수준에 따라 잠재집단 유형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확인하고 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개입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과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우리나라 대학생은 하나 이상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현재의 당면한 목표와 미래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가운데 높은 자기조절능력을 요구받고 있다(윤영, 조은별, 2021; 한혜원, 양수진, 2021). 하지만 대학생들은 당면한 과제수행과 미래준비 과정에서 누적된 자기조절 실패로 인해 정서 문제, 낮은 학업성취, 취업 문제, 대인관계, 물질관련 장애 등 많은 영역에서 부적응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교현, 2006; 이명진, 2011; Baumeister, Heatherton, & Tice, 1994; Tangney, Boone, & Baumeister, 2018). 대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자기조절능력은 자동적인 반응을 의식화하여 미래에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현재의 유혹이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능력으로 갈등 상황 속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얼마나 유연하게 사용하는지와 관련된다(Hofmann, Baumeister, Förster, & Vohs, 2012; Kuhl & Fuhrmann, 1998). 미래결과고려는 자기통제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으며 미래결과를 고려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통제와 정적인 관계있는 반면, 현재결과를 고려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충동적인 행동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rnocky et al., 2014; Dassen et al., 2015). 이러한 연구들을 볼 때 대학생들의 미래결과행동, 미래결과관심, 현재결과행동 및 현재결과관심 4개 요인에 따라 분류된 잠재집단유형은 자기조절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기조절능력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시간관 중 미래지향시간관, 현재운명시간관, 현재패락시간관과 성격5요인 및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대학생들의 주관적 인식과 경험은 미래결과고려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Zhang et al., 2015). 시간관(time perspective)은 개인적 사회적 경험의 연속적인 흐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범주화하여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무의식적 과정이다(Zimbardo & Boyd, 1999). 또한 과거, 현재, 미래 중 보다 선호하는 방향에 따라 현재의 판단, 결정, 행동 및 심리적 상태는 달라진다(Strathman et al., 1994). Boyd와 Zimbardo(2005)는 미래결과고려와 시간관의 유의한 상관을 보고한 바 있으며 시간관 잠재집단 분

류에 미래결과고려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Worrell, McKay, & Andretta, 2015). 또한 Nigro, Cosenza, Ciccarelli와 Joireman(2016)도 즉각결과고려는 현재운명시간관, 현재쾌락시간관과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으나 미래결과고려는 미래지향시간관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지향하는 시간관 중 미래지향시간관, 현재운명시간관, 현재쾌락시간관이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과 관련됨을 의미한다.

성격은 개인의 행동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주는 심리적 특성으로 후천적인 성장경험에 의해 결정되며 자신이 성장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김지현, 김복환, 하문선, 2011). 성격5요인은 성격특성의 개인차와 성격구조를 이해하는 데 가장 폭넓게 활용되었으며 개방성, 성실성, 신경증, 외향성, 친화성의 서로 독립된 5가지의 요인들이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본다(McCrae & Costa, 1997). 개방성은 새로운 정보, 지적 자극 및 다양성을 선호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탐색적인 태도를 보이며 성실성은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조절능력이 뛰어나 성취지향, 목표지향적 행동을 유지하는 정도가 높다. 신경증은 부정적인 정서를 쉽게 느낌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하며 안정감에 대한 욕구가 높다. 외향성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선호하고 그 속에서 쾌락추구적인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낀다. 친화성은 다른 사람에 대해 우호적이고 협동적인 성향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을 보인다. 미래결과고려는 개방성, 성실성과 관련이 있으며(Rappange et al., 2009), 개방성, 성실성, 신경증이 건강관련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미래결과고려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Nystrand, Olsen, & Tudoran, 2021). 또한 미래결과고려는 성실성, 친화성, 신경증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반면, 현재결과고려는 외향성과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helken & de Jong, 2017). 따라서 성격특성은 미래

결과고려 잠재집단 분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사회문화 속에서 형성된 대학생들의 성격특성과 미래결과고려의 관련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삶 전반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Bandura, 1977).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요구나 상황 속에서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광범위한 인간 행동과 대처 결과를 설명하는 데 활용되었다(Luszczynska, Scholz, & Schwarzer, 2005). Bandura(1997)는 개인과 행동 그리고 사건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지각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강조한 바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은 도전적이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에 필요한 집중과 행동을 함으로써 높은 수행 결과를 보인다.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낮은 대학생의 경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인식하고 이때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최적의 수행을 하지 못한다. 자기효능감은 미래결과고려와는 정적으로, 즉각결과고려 요인과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간태도 잠재집단분석에서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시간태도를 유지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부정적 시간태도집단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organ, Wells, Andretta, & McKay, 2017).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미래결과고려 정도에 따른 이질적인 잠재집단 유형이 분류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의 잠재집단 유형을 분류하고 잠재집단 유형에 대한 시간관, 성격5요인 및 자기효능감의 영향검증과 잠재집단 유형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진입 및 성인기 삶의 적응에 필요한 교육적 지원과 환경을 제공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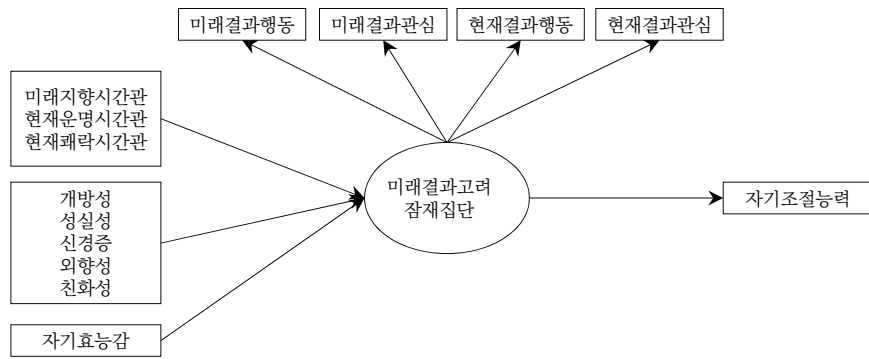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는 몇 개의 잠재 집단으로 분류되며 그 특징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에 시간관, 성격5요인,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은 차이가 있는가?

해석하였다. 측정 도구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1) 미래결과고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미래결과고려는 조한익과 허인화(2024)가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미래결과고려는 4개의 요인으로, 미래결과행동 6문항, 미래결과관심 6문항, 현재결과행동 5문항, 현재결과관심 5문항 전체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래결과행동은 미래결과나 보상에 가중치를 두고 미래결과를 위해 노력을 고취하는 행동이며 미래결과관심은 미래결과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결과행동은 즉각적인 결과나 보상 등 현재결과를 위해 노력을 고취하는 행동이며 현재결과관심은 현재결과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결과고려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미래결과행동 .74, 미래결과관심 .78, 현재결과행동 .74, 현재결과관심 .78이며 전체 신뢰도는 .72로 나타났다.

2) 시간관

본 연구는 Zimbardo와 Boyd(1999)가 개발하고 윤소정과 김정섭(2012)이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형 Zimbardo 시간관 척도 중 미래지향시간관 7문항, 현재운명시간관 7문항, 현재패락시간관 6문항을 사용하였다. 시간관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미래지향시간관 .82, 현재운명시간관 .76, 현재패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지역 대학생 59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남학생은 272명(46.1%), 여학생 318명(53.9%)이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100명(16.9%), 2학년 125명(21.2%), 3학년 187명(31.7%), 4학년 178명(30.2%)이다. 전공은 자연과학계열 275명(46.6%), 사회계열 149명(25.2%), 인문계열 109명(18.5%), 예체능계열 57명(9.7%)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의 각 문항은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척도의 특성이 높다고

표 1. 측정 도구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측정도구		문항예시	Cronbach's α
미래 결과 고려	미래결과행동	나는 미래에 결과를 생각할 때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	.74
	미래결과관심	미래에 도움되는 일을 준비하고 있을 때 뿌듯하다.	.78
	현재결과행동	나는 현재 얻게 되는 성과를 위해 행동한다.	.74
	현재결과관심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만으로도 벅차서 미래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78
시간관	미래지향시간관	오늘 하루를 최대한 충실히 살려고 노력한다.	.82
	현재운명시간관	내가 기대하던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없다.	.76
	현재패락시간관	모험은 내 인생을 지루하지 않게 한다.	.72
성격 5 요인	개방성	나는 독창적이며 새로운 생각을 잘 떠올리는 사람이다.	.90
	성실성	나는 일을 능률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78
	신경증	나는 쉽게 침울해지는 사람이다.	.79
	외향성	나는 외향적이며 사교적인 사람이다.	.82
	친화성	나는 사려깊고 거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다.	.73
자기효능감		나는 여러 종류의 일들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	.90
자기조절능력		불안해져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	.84

락시간관 .72로 나타났다.

3) 성격5요인

본 연구에서 성격5요인은 John과 Srivastava(1999)이 개발한 BFI(Big Five Inventory)를 김지현 등(2011)이 번안하고 재구성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성격5요인은 개방성 3문항, 성실성 3문항, 신경증 3문항, 외향성 3문항, 친화성 3문항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성격5요인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개방성 .90, 성실성 .78, 신경증 .79, 외향성 .82, 친화성 .73이며 전체 신뢰도는 .76으로 나타났다.

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송윤아(2010)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상황-특수적인 자기효능감과 대비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였으며 단일요인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5) 자기조절능력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조절능력은 Kuhl과 Fuhrmann(1998)이 개발하고 윤영신(2007)이 타당화한 의지능력

검사(Volitional Competence Inventory: VCI) 중 자기조절양식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자기조절능력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설문 참여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 설문에 대한 유의사항 및 비밀보장 원칙 등을 설문지 상단에 고지하고 설문 전 구두로도 안내하였다. 이후 설문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익명으로 설문에 참여하였다. 배부된 총 600부 중 594부가 회수되었으며 전체 문항에 무응답한 4부를 제외하고 590부가 수집되어 이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와 관련하여 몇 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의 미래결과고려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보지수인 AIC, BIC, SABIC를 활용하였으며 정보지수의 값이 작을수록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

하였다. 또한 조정된 χ^2 차이검증(LMR-LRT)과 모수적 부트스트랩 우도비 검증(BLRT)으로 모형 간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잠재집단의 수가 k 개인 모형을 평가할 때 $k-1$ 개 모형과 비교하여 χ^2 차이 검증에서 p -value가 유의하면 k 개 잠재집단 모형을 채택하고, 유의하지 않으면 $k-1$ 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채택한다(Lo, Mendell, & Rubin, 2001; McLachlan & Peel, 2000).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는 0 ~ 1 사이값으로 나타나며 모형이 대학생들을 각각의 잠재집단에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1에 가까울수록 정확성이 높은 분류로 간주한다(Jung & Wickrama, 2008). 일반적으로 Entropy가 0.8 이상일 때 모형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Muthén, 2004) 평균 사후확률은 일반적으로 대각 행렬이 0.7 이상이면 비교적 정확하게 집단을 분류하였다고 판단한다(Nagin, 2005). 이러한 통계적 지표와 해석적 측면에서의 간명성, 각 잠재집단에 속한 대학생의 수가 적절하게 분배되어 집단 구분의 의미가 있는 경우를 우선순위로 하였다(Collins & Lanza, 2010; Malmberg et al., 2012).

다음으로 연구문제 2의 잠재집단을 분류한 후 잠재집단과 영향요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Asparouhov & Muthén, 2014). 3단계 접근방식은 혼합모형(mixture model)에서 잠재집단 분류와 보조변수의 동시 추정의 문제를 보완하여, 잠재집단 분류와 잠재변수와 보조변수의 관련성을 독립적으로 추정하는 분석방법이다. 1단계는 잠재집단 분류에 필요한 지표변수만을 포함하여 적절한 잠재집단 수를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의 수를 2개부터 5개까지 늘려가며 통계적 지표들을 살펴보았다. 2단계는 사후 집단소속 확률에 근거하여 각 개인이 소속될 잠재집단을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1단계에서 추정된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에 대학생들을 할당하고, 분류오류를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2단계에서 추정된 분류오류를 고려한 상태에서 집단 분류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과 분류된 잠재집단에 따른 결과변인의 차이를 알아본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준거 집단을 기준으로 비교 집단에 속할 승산비를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문제 3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의 영향요인과 결과변인을 포함한 3단계 최종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집단별로 결과변인의 평균값을 구하고 Wald 검정을 통해 잠재집단별 결과변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분석하였다. 이는 다항로짓분석에서 로짓계수를 통해 영향요인과 잠재집단 간의 관련성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영향요인,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 결과변수 간의 상호관련성을 동시에 분석하는 장점이 있다(Asparouhov & Muthén, 2014). 이러한 분석은 SPSS 27.00과 Mplus 8.11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III. 연구결과

1.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 분류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 요인 간의 상관은 $-.42(p < .01) \sim .61(p < .01)$ 로 나타났다. 미래결과행동과 관련 변인 간의 상관에서 시간관은 $-.31(p < .01) \sim .70(p < .01)$, 성격 5요인 $-.03(p > .05) \sim .47(p < .01)$, 자기효능감 $.46(p < .01)$, 자기조절능력 $.36(p < .01)$ 로 나타났다. 미래결과관심과 관련 변인 간의 상관은 시간관 $-.40(p < .01) \sim .54(p < .01)$, 성격 5요인 $-.19(p < .01) \sim .41(p < .01)$, 자기효능감 $.45(p < .01)$, 자기조절능력 $.45(p < .01)$ 로 나타났다. 현재결과행동과 관련 변인 간의 상관은 살펴본 결과, 시간관은 $-.20(p < .01) \sim .44(p < .01)$, 성격 5요인 $-.14(p < .01) \sim .44(p < .01)$, 자기효능감 $.48(p < .01)$, 자기조절능력 $.36(p < .01)$ 로 나타났다. 현재결과관심과 관련 변인 간의 상관은 시간관 $-.36(p < .01) \sim .48(p < .01)$, 성격 5요인 $-.07(p > .05) \sim .57(p < .01)$, 자기효능감 $-.10(p < .05)$, 자기조절

능력 .01($p > .05$)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절댓값에서 왜도는 2이하, 첨도는 7이하인 경우, 정상분포곡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Chou & Bentler, 1995). 본 연구에서는 변인 간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는 -.49 ~ .46로 나타났다으며 첨도는 -.62 ~ 1.12로 나타나 정규분포곡선의 기본 가정을 만족한다고 판단하였다(Chou & Bentler, 1995). 또한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를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는 .36 ~ .83, 분산팽창계수는 1.21 ~ 2.75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Grimm & Yarnold, 2000). 구체적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미래결과고려 4개 요인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적합도는 만족할만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 = 620.76$, $p <$

.01, TLI = .87, CFI = .90, RMSEA = .06). 미래결과고려 4개 요인 측정변인의 표준화 계수를 살펴본 결과, 미래결과행동 계수는 .76 ~ .83, 미래결과관심 계수는 .77 ~ .84, 현재결과행동 계수는 .78 ~ .83, 현재결과관심 계수는 .77 ~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평균 분산추출(AVE)은 .60이상으로 나타났고 개념신뢰도도 .80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는 만족할만한 것으로 판단하였다(Anderson & Gerbing, 1988; Fornell & Larcker, 1981). 변별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해당 요인의 AVE의 제곱근이 요인 간 상관보다 커야 한다는 Fornell-Larcker의 기준(Hair, Hult, Ringle, & Sarstedt, 2017)을 볼 때 변인들의 AVE의 제곱근이 잠재집단의 상호상관보다 높게 나타나 변별타당도가 입증되었고 판단하였다. 미래결과고려 4개 요인 간 상관계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2.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미래결과고려				시간관			성격5요인					자기 효능감	자기조절 능력
		미래 행동	미래 관심	현재 행동	현재 관심	미래 지향	현재 운명	현재 패락	개방성	성실성	신경증	외향성	친화성		
미래 결과 고려	미래 행동	1.00													
	미래 관심	.61**	1.00												
	현재 행동	.48**	.58**	1.00											
	현재 관심	-.42**	-.23**	.03	1.00										
시 간 관	미래 지향	.70**	.54**	.47**	-.36**	1.00									
	현재 운명	-.31**	-.40**	-.20**	.48**	-.35**	1.00								
	현재 패락	-.11**	.03	.06	.40**	-.23**	.21**	1.00							
성 격 5 요 인	개방성	.13**	.14**	.11**	.07	.02	.02	.41**	1.00						
	성실성	.47**	.41**	.44**	-.20**	.57**	-.27**	-.06	0.05	1.00					
	신경증	-.03	-.19**	-.14**	-.01	-.07	.32**	.02	.04	-.17**	1.00				
	외향성	.16**	.22**	.16**	-.01	.16**	-.18**	.17**	.15**	.21**	-.22**	1.00			
	친화성	.29**	.35**	.22**	-.02	.25**	-.13**	.23**	.19**	.27**	-.07	.24**	1.00		
자기효능감		.46**	.45**	.48**	-.10*	.50**	-.28**	.13**	.30**	.64**	-.29**	.33**	.30**	1.00	
자기조절능력		.36**	.45**	.36**	.01	.41**	-.22**	.19**	.31**	.37**	-.36**	.24**	.36**	.64**	1.00
M		3.51	3.98	3.80	3.07	3.54	2.53	3.32	3.27	3.70	2.76	3.10	3.72	3.56	3.19
SD		.63	.61	.56	.74	.71	.67	.66	1.01	.79	.94	.99	.76	.66	.65
왜도		-.25	-.50	-.34	.13	-.24	.46	-.13	-.28	-.42	-.06	.03	-.44	-.15	.12
첨도		.39	1.12	1.10	-.24	.11	.36	.08	-.56	.26	-.60	-.62	.27	.43	.34

* $p < .05$, ** $p < .01$.

표 3. 미래결과고려의 상관계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평균분산추출 (<i>AVE</i>)	개념신뢰도 (<i>CR</i>)	미래결과 행동	미래결과 관심	현재결과 행동	현재결과 관심
미래결과행동	.68	.85	.82			
미래결과관심	.69	.88	.80**	.83		
현재결과행동	.67	.83	.81**	.81**	.82	
현재결과관심	.68	.88	-.56**	-.36**	-.22**	.82

주. 잠재변인의 대각선은 *AVE*의 제곱근임.

** $p < .01$.

2)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 분류

본 연구에서는 미래결과고려를 Z점수로 표준화한 후, 잠재집단 분류를 위해 정보지수인 AIC, BIC, SABIC와 모형비교 검증을 위한 LMR-LRT, BLRT 및 Entropy를 분석하였다. 이는 지표변수인 미래결과고려 요인별 표준편차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잠재집단 분류의 엄격성을 높일 수 있다(Starrett et al., 2022).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의 정보지수를 비교한 결과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AIC, BIC, SABIC는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비교 검증에서 LMR-LRT는 잠재집단의 수가 2개와 4개에서 유의하였고 3개와 5개 잠재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BLRT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는 잠재집단의 수가 2개일 때, .67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나 이는 중간 정도의 분류의 질을 나타내며 계층분류 확률을 확인한 결과, .8 이상의 값을 보이므로 계층분류가 양호하다고 보았다(Nagin, 2005). 잠재집단의 수가 3개일 때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는 .76으로 나타났으나 모형비교 검증의 LMR-LRT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4개와 5개의 잠재집단에서의 class 1을 볼 때 전체 표본 수 대비 각 집단의 비율이 5% 이상이고 각 집단의 사례수는 2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rlin, Williams, & Parra, 2014; Jung & Wickrama,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지수, 집단의 구분 정도 및 해석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은 2개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Berlin et al., 2014; Collins & Lanza,

2010). 각 모형에 대한 모형적합도 지수와 잠재집단에 대한 추정치는 표 4와 같으며 잠재집단 수가 2개일 때의 평균 사후확률은 표 5에 제시하였다.

3)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 유형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미래결과고려 요인별 기술통계를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 1은 40.73% 차지하고 있으며 미래결과행동, 미래결과관심, 현재결과행동 및 현재결과관심이 3점 이상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하지만 Z점수 평균에서는 잠재집단 2와 비교해 볼 때 현재결과관심은 높고 미래결과행동, 미래결과관심 및 현재결과행동 점수는 낮게 나타나 현재결과관심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2는 59.27%로 현재결과관심은 잠재집단 1에 비해 낮으나 하위요인인 미래결과행동, 미래결과관심, 현재결과행동에서는 잠재집단 1에 비해 높게 나타나 현재결과와 미래결과를 고려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미래지향 노력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의 기술통계는 표 6과 같으며 잠재집단 프로파일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2.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결과관심집단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승산비인 EXP(b)는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참조집단보다 비교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1보다

표 4.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 분류(Z_{score} 로 변환하여 추정)

		2	3	4	5
정보 지수	AIC	4563.06	4421.18	4316.31	4281.73
	BIC	4619.99	4500.02	4417.05	4404.38
	SABIC	4578.73	4442.88	4344.03	4315.49
분류질	Entropy	.67	.76	.78	.76
모형 비교 검증	LMR-LRT	345.75	147.26	111.38	43.22
	(p)	.00	.19	.04	.30
	BLRT	-2446.82	-2268.52	-2192.59	-2135.15
	(p)	.00	.00	.00	.00
	class1	240.28 (40.73%)	70.53 (11.96%)	3.00 (0.51%)	3.00 (0.51%)
	class2	349.72 (59.27%)	356.73 (60.46%)	133.47 (22.62%)	106.51 (18.01%)
	class3		162.74 (27.58%)	131.43 (22.28%)	288.24 (48.84%)
	class4			322.10 (54.59%)	142.16 (24.10%)
	class5				50.08 (8.49%)

표 5.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에 평균 사후확률

	잠재집단 1	잠재집단 2
잠재집단 1에 속할 확률	.89	.11
잠재집단 2에 속할 확률	.09	.91

표 6.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의 기술통계

변인	현재결과 관심집단(1) 240.28명 (40.73%)			미래지향 노력집단(2) 349.72명 (59.27%)		
	Z 점수평균	M	SE	Z 점수평균	M	SE
미래결과행동	-.54	3.02	.10	.37	3.87	.06
미래결과관심	-.54	3.54	.08	.37	4.31	.07
현재결과행동	-.36	3.50	.05	.25	4.03	.06
현재결과관심	.32	3.39	.09	-.22	2.83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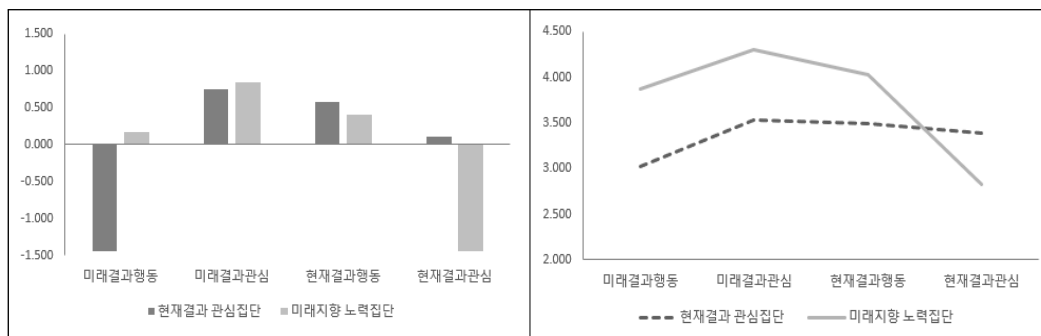


그림 2.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 프로파일

표 7.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 영향요인

영향요인		미래지향 노력집단(2)			
		<i>B</i>	<i>SE</i>	<i>EXP(b)</i>	<i>p</i>
시간관	미래지향	3.16	.55	23.67	.00
	현재운명	-1.45	.32	.23	.00
	현재패락	-.47	.42	.63	.26
성격 5요인	개방성	.16	.22	1.18	.46
	성실성	.05	.40	1.05	.91
	신경증	-.15	.24	.86	.54
	외향성	-.01	.21	.99	.95
	친화성	.64	.29	1.89	.03
자기효능감		.78	.40	2.19	.04

주. 참조집단: 현재결과 관심집단(1).

표 8.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별 자기조절능력 차이

잠재집단 구분	자기조절능력		
	<i>M</i>	<i>SE</i>	χ^2
현재결과 관심집단	2.81	.04	117.66**
미래지향 노력집단	3.46	.04	

** $p < .01$.

작은 경우 비교집단보다 참조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미래지향시간관을 가진 대학생일수록 현재결과 관심집단에 비해 미래지향 노력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 = 3.16, p < .01$). 반면에 현재운명시간관을 가진 대학생일수록 현재결과 관심집단에 비해 미래지향 노력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 = -1.45, p < .01$). 성격 5요인 중 친화성이 높은 성격을 가진 대학생일수록 현재결과 관심집단에 비해 미래지향 노력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 = .64, p < .05$).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현재결과 관심집단에 비해 미래지향 노력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 = .78, p < .05$). 이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3.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별 자기조절능력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결과변인으로 설정한 자기조절능력 수준의 잠재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자기조절능력은 5점 척도로 현재결과 관심집단의 자기조절능력 평

균은 2.81로 나타났으며 미래지향 노력집단의 자기조절능력 평균은 3.46으로 나타났다. 현재결과 관심집단의 자기조절능력과 미래지향 노력집단의 자기조절능력 간 차이를 검정한 결과, 현재결과 관심집단에 비해 미래지향 노력집단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 = 117.66, p < .01$). 이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 유형과 그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잠재집단 분류에 시간관, 성격5요인 및 자기효능감의 영향검증과 자기조절능력의 잠재집단별 차이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은 2개의 집단유형인 현재결과 관심집단, 미래지향 노력집단이 도출되었다. 잠재집단 분류율을 살펴보면 미래지향 노력집단은

59.27%, 현재결과 관심집단은 40.73%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초점 군집분석에서 지향하는 시간초점이 없거나 다중적으로 시간초점을 갖는 유형이 나타난다는 연구(Mckay et al., 2017), 시간초점 잠재집단 유형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초점 정도가 상중하로 구분되는 유형 외에도 현재에 초점을 둔 집단이 도출된다는 연구(Shipp et al., 2022)와 관련된다. 또한 청소년들은 미래결과를 고려하지만, 또래 관계 및 자신의 욕구 때문에 부정적인 미래결과를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연구(Mckay et al., 2012)와 맥을 같이 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대학생들은 현재결과와 미래결과를 동시에 고려할 수는 있으나 결과를 고려하는 정도는 이질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미래결과 혹은 현재결과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다를 때 결과를 인식한 이후의 행동에도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미래결과행동, 미래결과관심, 현재결과행동, 현재결과관심의 수준과 행동 유형에 따라 현재결과 관심집단과 미래지향 노력집단으로 구분된다.

잠재집단별 특징을 살펴보면 현재결과 관심집단의 경우 미래지향 노력집단에 비해 미래결과행동, 미래결과관심, 현재결과행동은 낮고 현재결과관심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당장의 필요와 결과에 집중하는 정도가 높은 사람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미래결과에 대한 정보를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Rappange et al., 2009; Strathman et al., 1994). 또한 미래결과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할 경우, 미래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멀게 지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Green & Myerson, 2013). 이때 대학생들은 미래의 결과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현재의 당면한 과제를 성급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보상이 지연될수록 보상에 대한 기대와 가치가 감소하고 미래의 큰 보상보다 현재의 작은 보상을 선택하는 경향이 발생한다(Hershfield, 2011). 따라서 현재결과 관심집단에 속한 대학생들은 불확실성과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미래보다는 현재를 우선순위로 두고 지금 체감할 수 있는 결과에 집중하며 생활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래지향 노력집단은 현재결과 관심집단에 비해 미래결과행동, 미래결과관심 및 현재결과행동은 높으나 현재결과관심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관심은 목표설정, 진로탐색 및 경력쌓기와 정적으로 관련되며(Andre, Van Vianen, Peetsma, & Oort, 2018) 현재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유사하게 인식할수록 현재의 작은 보상보다는 미래의 큰 보상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미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구체적으로 표상화할수록 현재와 미래의 감정적 연결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미래의 자신에게 필요한 선택을 더 많이 할 수 있다(Donovan & Williams, 2003; Hershfield, 2011). 또한 현재의 욕구와 미래의 보상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의 연결성이 높을수록 지연행동이 감소하고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Nurra & Oyserman, 2018). 이에 미래지향 노력집단은 미래결과에 높은 가치를 두고 미래의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될수록 동기화되는 유형으로 현재와 미래결과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성취감, 만족감 등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자신의 모습이 미래 자신의 모습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결과와 미래결과를 고려한 행동을 촉진할 것으로 본다. 이와 더불어 목표달성에 필요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목표달성을 방해하는 행동들은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 분류에 시간관, 성격5요인, 자기효능감의 영향은 어떠한가를 살펴본 결과 미래지향시간관을 가진 대학생일수록 현재결과 관심집단에 비해 미래지향 노력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현재운명시간관을 가진 대학생일수록 현재결과 관심집단에 비해 미래지향 노력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결과고려와 미래지향시간관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으며 즉각결과고려는 현재운명시간관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Boyd & Zimbardo, 2005; Nigro et al., 2016; Strathman et al., 1994). 대학생들이 미래결과에 대해 관심이 있더라도 현재와 미래의 일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인식할수록 근시안적인 목표를 설정하거나 미래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래지향 노력집단에 속한 대학생은 미래에 기대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면서 보다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촉진해 나간다. 또한 목표달성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행동을 피하도록 동기화한다고 볼 수 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긍정적인 발달과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진입을 촉진한다(Stoddard, Zimmerman, & Bauermeister, 2011). 따라서 성취지향적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현재 행동과 미래결과 간의 관계를 구체화함으로써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자신의 학업과 진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이러한 정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의 노력은 미래에 자신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자격증 취득, 인턴십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성격5요인 중 친화성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현재결과 관심집단에 비해 미래지향 노력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결과고려는 개방성, 성실성과 관련이 있으며(Rappange et al., 2009), 개방성, 성실성, 신경증이 건강관련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미래결과고려의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보고한 연구(Nystrand et al., 2021)와는 다른 결과이다. 사회문화적 배경은 현재결과와 미래결과를 고려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Zhang et al., 2015). 동양문화권에서는 자신을 상호의존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으며 서양문화권에서는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을 상호의존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의 경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더 가깝게 인식하며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지은, 2019). 또한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협력적인 행동을 보이며 호혜성을 바탕으로 사회지향적인 목표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ndre et al., 2018; Wolf

et al., 2009). 친화성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개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사회환경에 미칠 미래결과를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행동에 관심을 높여 나간다고 볼 수 있다(Arnocky et al., 2014). 따라서 대학생들이 타인에 대한 관심과 친화성을 높일 수 있도록 봉사활동, 지역사회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팀기반학습(team-based learning), 협력학습(cooperative learning), 학습공동체 활동 등과 같은 교수·학습 방법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타인을 경쟁자로 인식하며 남과 비교하여 뒤처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지양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결과를 고려한 의사결정과 행동이 촉진되는 교육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현재결과 관심집단에 비해 미래지향 노력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자신과 관련이 없는 과제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잘 해낼 능력이 있다는 신념으로 이는 성취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다양한 영역으로 전이될 수 있다(송윤아, 2010). 또한 과거의 경험은 미래의 선택에 영향을 주며 미래지향적 의사결정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지와 관련된다. 자기효능감은 미래결과고려와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효능감은 정보를 탐색하고 필요한 행동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andura, 1997; Lent, Schmidt, & Schmidt, 2006). 한편 직관적인 사고를 통해 내린 빠른 결정은 즉각적인 만족을 선호하며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양한 편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Frederick, 2005). Bandura(1997)도 대학생들이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자신에게 잘 해낼 능력이 있다는 신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행동을 수행하기 전에 자신과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대학생들이 인지적인 성찰을 통해 과거의 경험을 숙고하고 현재 자신의 자원과 기대하는 결과 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전략들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대학생에서 성취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생의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에 따라 자기조절 능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현재결과 관심집단에 비해 미래지향 노력집단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이는 미래결과고려는 자기통제가 필요한 행동과 관련되며 미래결과고려 수준에 따라 자기조절과 관련된 행동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Arnocky et al., 2014; Dassen et al., 2015; Joireman et al., 2012). 미래결과를 지향하는 대학생들은 학업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며, 미래결과를 지향할수록 자기조절을 매개로 학습몰입 및 지연행동에 유의미한 영향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지영, 한세영, 2020; 안다영, 홍아정, 2019). 또한 미래 목표에 대해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질 때 자기조절능력이 높아지고, 목표관련 사고와 행동이 잘 유지되었다(Trope & Liberman, 2003). 따라서 대학생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며 자신의 감정, 행동, 욕구 등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결과에 대한 기대와 조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미래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행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목표의식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미래결과에 대한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지지자원들을 탐색하고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한편 대학생들이 다중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래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는 자기조절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진로 및 취업관련 활동에서 스트레스 관리, 시간관리 전략, 정서·행동 조절 프로그램들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다차원 미래결과고려의 잠재집단 유형을 도출하고 잠재집단 유형별 특징을 살펴본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연구들은 평균적인 미래결과와 즉각결과를 고려하는 정도와 변인 간의 관련성 및 영역특이성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미래결과행동,

미래결과관심, 현재결과행동, 현재결과관심의 수준에 따른 이질적인 잠재집단 유형을 사람중심 접근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은 현재결과에 관심을 갖고 당면한 과제에 집중하는 현재결과 관심집단과 현재와 미래결과를 고려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동기화되는 미래지향 노력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특징을 제안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개발한 척도를 바탕으로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 분류에 시간관, 성격5요인 및 자기효능감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만의 사회문화적 배경은 대학생들의 미래결과고려 정도에 따른 이질적인 잠재집단 유형이 분류되는 데 성격5요인 중 친화성의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자신의 미래결과와 더불어 타인과 사회환경의 미래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화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 및 개입전략을 제안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능력을 결과변인으로 하여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학생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높은 자기조절능력은 현재 학업성취와 성공적인 취업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자기조절실패는 대학생들의 현재의 대학생생활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 유형 간 자기조절능력을 살펴봄으로써 대학생들이 보다 나은 미래결과를 기대하며 인지, 정서, 행동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적 개입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어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 유형을 도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미래결과를 고려하는 수준이 시간이 지남에 달라지는지에 대한 발달궤적과 미래결과고려 잠재집단의 전이 양상은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미래결과고려를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여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학업, 재정, 건강 등 영역별로 현재와 미래의 결과를 고려하는 정도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영역별 미래결과고려의 잠재집단 유형을 살펴보고 그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교현 (2006). 중독과 자기조절: 인지신경과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63-105.
- 김지현, 김복환, 하문선 (2011). 간편형 한국어 BFI (Big Five Inventory) 타당화 연구. *인간이해*, 32(1), 47-65.
- 문지영, 한세영 (2020). 고등학생의 미래결과에 대한 고려와 자기통제가 능동 지연행동과 수동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24(1), 15-30.
<https://doi.org/10.36357/johe.2020.24.1.15>
- 송윤아 (2010).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개발 및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다영, 홍아정 (2019). 대학생의 미래결과지향성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과 협력적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한국교육문제연구*, 37(2), 61-86.
<https://doi.org/10.22327/kei.2019.37.2.061>
- 윤소정, 김정섭 (2012). 한국형 Zimbardo 시간관 척도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6(2), 587-606.
- 윤영, 조은별 (2021). 대학생의 생애목표 유형 분석과 진로의식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탐색. *교육문화연구*, 27(4), 125-149.
<https://doi.org/10.24159/joec.2021.27.4.125>
- 윤영신 (2007).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 관련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명진 (2011). 자기조절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교육문제연구*, (39), 161-193.
- 이상준 (2020).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7(1), 1-15.
<https://doi.org/10.15284/kjhd.2020.27.1.1>
- 임지은 (2019). 가깝지만 먼 시간 지각의 역설: 자기해석, 조절초점, 시간적 거리와 시간적 결과의 적합성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20(2), 257-277.
<https://doi.org/10.21074/kjlcap.2019.20.2.257>
- 조한익, 허인화 (2024). 다차원 Rasch 모형을 적용한 대학생용 미래결과고려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38(1), 25-57.
<http://doi.org/10.17286/KJEP.2024.38.1.02>
- 주영주, 고경이, 정유진 (2015). 대학생의 긍정적 정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결과기대가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만족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8(3), 65-83.
- 한혜원, 양수진 (2021). 대학생의 물질주의, 생애목표 유형에 따른 그릿, 삶의 의미, 행복감의 차이: 잠재프로파일분석의 적용. *사회과학연구논총*, 37(1), 251-273.
<http://doi.org/10.16935/ejss.2021.37.1.008>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https://doi.org/10.1037/0033-2909.103.3.411>
- Andre, L., Van Vianen, A. E., Peetsma, T. T., & Oort, F. J. (2018). Motivational power of future time perspective: Meta-analyses in education work, and health. *PLoS One*, 13(1), e0190492.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90492>
- Arnocky, S., Milfont, T. L., & Nicol, J. R. (2014). Time perspective and sustainable behavior: Evidence for the distinction between consideration of immediate and future consequences. *Environment and Behavior*, 46(5), 556-582.
<https://doi.org/10.1177/0013916512474987>
-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https://doi.org/10.1080/10705511.2014.915181>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https://doi.org/10.1037/0033-295X.84.2.191>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Y: NH Freeman.
- Baumeister, R. F., Heatherton, T. F., & Tice, D. M. (1994). *Losing control: How and why people fail at self-regulation*.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Berlin, K. S., Williams, N. A., & Parra, G. R. (2014).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part 1): Overview and cross-sectional latent class and latent profile analyse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9(2), 174-187.
<https://doi.org/10.1093/jpepsy/jst084>
- Boyd, J. N., & Zimbardo, P. G. (2005). Time perspective, health, and risk taking. In A. Strahan, & J. Joireman (Eds.), *Understanding behavior in the context of time:*

-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pp. 85-107). Mahwah, NJ: Erlbaum.
- Chou, C. P., & Bentler, P. M. (1995). Estimates and tes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37-55). New York: Sage.
- Collins, L. M., & Lanza, S. T. (2010).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New York: Wiley.
- Dassen, F. C., Houben, K., & Jansen, A. (2015). Time orientation and eating behavior: Unhealthy eaters consider immediate consequences, while healthy eaters focus on future health. *Appetite*, 91, 13-19.
<https://doi.org/10.1016/j.appet.2015.03.020>
- Donovan, J. J., & Williams, K. J. (2003). Missing the mark: Effects of time and causal attributions on goal revision in response to goal-performance discrepanc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3), 379-390.
<https://doi.org/10.1037/0021-9010.88.3.379>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https://doi.org/10.2307/3151312>
- Frederick, S. (2005). Cognitive reflection and decision making.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9(4), 25-42.
<https://doi.org/10.1257/089533005775196732>
- Green, L., & Myerson, J. (2013). How many impulsivities? A discounting perspective. *Journal of the Experimental Analysis of Behavior*, 99(1), 3-13.
<https://doi.org/10.1002/jeab.1>
- Grimm, L. G., & Yarnold, P. R. (2000).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ir, J. F., Hult, G. T. M., Ringle, C. M., & Sarstedt, M. (2017). *A primer on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Hershfield, H. E. (2011). Future self-continuity: How conceptions of the future self transform intertemporal choice.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235(1), 30-43.
<https://doi.org/10.1111/j.1749-6632.2011.06201.x>
- Hofmann, W., Baumeister, R. F., Förster, G., & Vohs, K. D. (2012). Everyday temptations: An experience sampling study of desire, conflict, and self-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6), 1318-1335.
<https://doi.org/10.1037/a0026545>
- John, O. P., & Srivastava, S. (1999). The big 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In L. A. Pervin, & O. P. Joh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2nd ed, pp. 102-138). New York: Guilford.
- Joireman, J., & King, S. (2016).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consideration of future and (more) immediate consequences: A review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0(5), 313-326.
<https://doi.org/10.1111/spc3.12252>
- Joireman, J., Balliet, D., Sprott, D., Spangenberg, E., & Schultz, J. (2008). Consideration of future consequences, ego-depletion, and self-control: Support for distinguishing between CFC-Immediate and CFC-Future sub-sca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1), 15-21.
<https://doi.org/10.1016/j.paid.2008.02.011>
- Joireman, J., Shaffer, M. J., Balliet, D., & Strathman, A. (2012). Promotion orientation explains why future-oriented people exercise and eat healthy: Evidence from the two-factor consideration of future consequences-14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10), 1272-1287.
<https://doi.org/10.1177/0146167212449362>
- Jung, T., & Wickrama, K. A.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https://doi.org/10.1111/j.1751-9004.2007.00054.x>
- Kuhl, J., & Fuhrmann, A. (1998). Decomposing self-regulation and self-control: The volitional components inventory. In J. Heckhausen, & C. S. Dweck (Eds.), *Motivation and self-regulation across the life span* (pp. 15-49). NJ: Erlbaum.
- Lent, R. W., Schmidt, J., & Schmidt, L. (2006). Collective efficacy beliefs in student work teams: Relation to self-efficacy, cohesion,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8(1), 73-84.
<https://doi.org/10.1016/j.jvb.2005.04.001>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https://doi.org/10.1093/biomet/88.3.767>
- Luszczynska, A., Scholz, U., & Schwarzer, R. (2005).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Multicultural validation studies. *The Journal of Psychology*, 139(5), 439-457.
<https://doi.org/10.3200/JRLP.139.5.439-457>
- Malmberg, M., Kleinjan, M., Vermulst, A. A., Overbeek, G., Monshouwer, K., Lammers, J., & Engels, R. C.

- (2012). Do substance use risk personality dimensions predict the onset of substance use in early adolescence? A variable-and person-centered approac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1(11), 1512-1525.
<https://doi.org/10.1007/s10964-012-9775-6>
- McCrae, R. R., & Costa, P. T. Jr. (1997). Personality trait structure as a human universal. *American Psychologist*, 52(5), 509-516.
<https://doi.org/10.1037/0003-066X.52.5.509>
- McKay, M. T., Ballantyne, N., Goudie, A. J., Sumnall, H. R., & Cole, J. C. (2012). Here for a good time, not a long time: Decision-making, future consequences and alcohol use among Northern Irish adolescents. *Journal of Substance Use*, 17(1), 1-18.
<https://doi.org/10.3109/14659891.2011.559566>
- McKay, M. T., Cole, J. C., & Percy, A. (2017). Temporal focus clusters differ meaningfully in terms of anxiety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Psychiatry Research*, 256, 283-285.
<https://doi.org/10.1016/j.psychres.2017.06.061>
- McKay, M. T., Perry, J. L., & Cole, J. C. (2018). Further evidence for the domain specificity of consideration of future consequences in adolescents and university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8, 127-132.
<https://doi.org/10.1016/j.paid.2018.02.032>
- McLachlan, G. J., & Peel, D. (2000). Mixtures of factor analyzers. In *Proceedings of the seven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pp. 599-606). MA: Morgan Kaufmann.
- Morgan, G. B., Wells, K. C., Andretta, J. R., & McKay, M. T. (2017). Temporal attitudes profile transition among adolescents: A longitudinal examination using latent transition mover-stayer analysis. *Psychological Assessment*, 29(7), 890-901.
<https://doi.org/10.1037/pas0000383>
- Murphy, L., Cadogan, E., & Dockray, S. (2020). The consideration of future consequences: Evidence for domain specificity across five life domai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6(5), 663-678.
<https://doi.org/10.1177/0146167219873478>
- Muthén, B.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In D. Kaplan. (Ed.), *The Sage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s* (pp. 345-368). CA: Sage.
- Nagin, D. (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 Nigro, G., Cosenza, M., Ciccarelli, M., & Joireman, J. (2016). An Italian translation and validation of the consideration of future consequences-14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1, 333-340.
<https://doi.org/10.1016/j.paid.2016.06.014>
- Nurra, C., & Oyserman, D. (2018). From future self to current action: An identity-based motivation perspective. *Self and Identity*, 17(3), 343-364.
<https://doi.org/10.1080/15298868.2017.1375003>
- Nystrand, B. T., Olsen, S. O., & Tudoran, A. A. (2021). Individual differences in functional food consumption: The role of time perspective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ppetite*, 156, 104979.
<https://doi.org/10.1016/j.appet.2020.104979>
- Rappange, D. R., Brouwer, W. B., & Van Exel, N. J. A. (2009). Back to the consideration of future consequences scale: Time to reconsider?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9(5), 562-584.
<https://doi.org/10.1080/00224540903232324>
- Shipp, A. J., Gabriel, A. S., & Lambert, L. S. (2022). Profiles in time: Understanding the nature and outcomes of profiles of temporal focu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07(9), 1640-1654.
<https://doi.org/10.1037/apl0000950>
- Starrett, A., Pennell, A., Irvin, M. J., Taunton Miedema, S., Howard-Smith, C., Goodway, J. D., Stodden, D. F., & Brian, A. (2022). An examination of motor competence profiles in preschool children: A latent profile analysis.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93(3), 437-446.
<https://doi.org/10.1080/02701367.2020.1859440>
- Stoddard, S. A., Zimmerman, M. A., & Bauermeister, J. A. (2011). Thinking about the future as a way to succeed in the present: A longitudinal study of future orientation and violent behaviors among African American youth.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8(3), 238-246.
<https://doi.org/10.1007/s10464-010-9383-0>
- Strathman, A., Gleicher, F., Boninger, D. S., & Edwards, C. S. (1994). The consideration of future consequences: Weighing immediate and distant outcomes of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4), 742-752.
<https://doi.org/10.1037/0022-3514.66.4.742>
- Tangney, J. P., Boone, A. L., & Baumeister, R. F. (2018).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In *Self-regulation and self-control* (pp. 173-212). New York: Routledge.
- Thelken, H. N., & de Jong, G. (2017). *The influence of the Big Five on consideration of future consequences: Theory and evidence from dutch citizens*. Leeuwarden:

- Rijksuniversiteit Groningen/Campus Fryslân.
- Trope, Y., & Liberman, N. (2003). Temporal construal. *Psychological Review*, 110(3), 403-421. <https://doi.org/10.1037/a0018963>
- Wolf, S. T., Cohen, T. R., Kirchner, J. L., Rea, A., Montoya, R. M., & Insko, C. A. (2009). Reducing intergroup conflict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future consequenc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9(5), 831-841. <https://doi.org/10.1002/ejsp.592>
- Worrell, F. C., McKay, M. T., & Andretta, J. R. (2015). Concurrent validity of 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 profiles: A secondary analysis of data from the United Kingdom. *Journal of Adolescence*, 42, 128-139.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15.04.006>
- Zhang, Z., Kong, M., Zhang, L., & Li, Z. (2015). Consideration of future consequences: Preliminary evidences for a four-factor distin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7, 99-104. <https://doi.org/10.1016/j.paid.2015.07.022>
- Zimbardo, P. G., & Boyd, J. N. (1999). Putting time in perspective: A valid, reliable individual-differences metric.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6), 1271-1288. <https://doi.org/10.1037/0022-3514.77.6.1271>